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를 기원합니다.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f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WINTER 2016 겨울호



江表春色如柳絮
人如一枝个个
朝鮮國
梧園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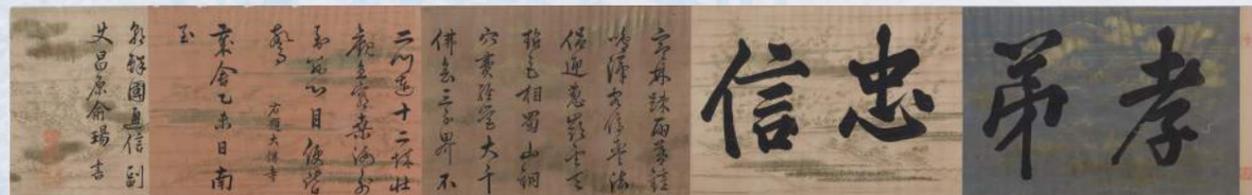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SNS관련문의 기획홍보팀 051-745-7223~4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信忠弟孝

1655년 조형(趙珩)을 정사로 하는 조선통신사의 부사(副使)로서 일본에 갔었던 추담(秋潭) 유창(兪場)의 필적으로 일본 다이부쓰지 [大佛寺]를 시제로 하였다. 그 시는 그의 붓놀림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에서의 뛰어난 재능을 입증하였다.

사 진 | 兪場筆跡(詩)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 1655년
제 작 자 | 兪場
제작연대 | 1655년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제공 | 국사편찬위원회



〈표지 설명〉

사 진 | 화조도(花鳥圖)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 1811년
제 작 자 | 槐園
제작연대 | 1811년
소 장 처 | 부산박물관
사진제공 | 부산박물관

CONTENTS

- 권두칼럼 04** 한일공동으로 조선통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카와무라 타케오 | 전 내각관방장관·문부과학대신
현 중의원의원
- 성신교린 06** 한-일 미래를 위한 상호교류, 공생(共生)이 답이다
로이 알록 쿠마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 기획특집 08** 조선통신사, 등재의 열망을 안고 파리로 향하다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한태문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ZOOM IN 조선통신사 12** 세토우치 우시마도와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쿠리치 카쓰나오 | 오카야마대 명예교수
- 신조선통신사 18** 가깝고도 먼 나라, 그 오래된 미래
정신혜 | 신라대 무용학과 교수, 정신혜무용단 예술감독
- 문화프리즘 22** '헤이트 스피치'와 '프리 허그'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조선통신사 24時 24**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로 진출하다!
조선통신사 뉴스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조선통신사 갤러리 27** 통신사의 속소 이야기
- 에도 속소 히가시훈간지를 중심으로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발행일 2016. 12. 23. 발행인 유종목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 744. 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6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일공동으로 조선통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日韓共同で朝鮮通信使を世界記憶(記録)遺産に



카와무라 타케오 + 전 내각관방장관·문부과학대신
현 중의원의원
河村 建夫 + 元内閣官房長官文科相
衆議院議員

わが日本と韓国は古来、一衣帯水の隣国として深い交流があったが、とりわけ室町時代から江戸時代末期にかけて、中斷こそあったものの、連綿と続いた朝鮮通信使は日韓両国のさまざまな分野での文化興隆に多大な実績を残した。不肖私は日韓議連幹事長、朝鮮通信使交流議員の会会長、日韓親善協会会長として官民協力し、日韓共同で朝鮮通信使を世界記憶(記録)遺産登録するべく奮励努力している。



일본과 한국은 바다가 가로놓여 있지만 매우 가까이 있으며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깊은 교류를 쌓아 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였던 만큼 때로는 국가간의 난제에 가로막혔고, 특히 한때 일본의 식민 지배로 많은 희생과 고통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늘 깊은 반성을 토대로 현재의 우호 친선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기본적인 인권, 혹은 시장경제와 같은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며 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72년 봄에는 양국의 국회의원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우호 친선 관계에 기여하고자 한일·일한의원간친화회를 발족시켰으며, 3년 후에는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으로 발전적인 재편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도 한일 양국은 굴곡진 난관에 여러 번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일한 양 의원연맹은 의원의외교의 등불을 높이 들고서 결코 멈추지 않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화해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불초한 필자가 분에 넘치게도 작년 중의원에서 재직 25년 장기근속표창을 의원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러한 필자는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진심으로 염원하며 필생의 과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적 아버지 이자 스승이며 한일 우호 관계에 반평생을 바치신 고(故) 타나카 다쓰오[田中龍夫]선생님(중의원의원 13기, 전 문부과학대신, 전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전신> 대신)께서 후배들과 필자가 그 뜻을 이어받아 배전의 열정으로 같은 길을 걸어 주기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한 지 꼭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과거 양국의 인적



왕래는 연간 1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무려 500만 명을 넘어섰고 양국의 무역 총액은 당시의 약 110배로 늘어났습니다. 진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가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일한의원연맹, 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간조직 일한친선협회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선통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입니다.

일본열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숲과 바다의 문화인 조몬[縄文]시대'는 대략 1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경문화가 대륙에서 넘어온 것은 그 다음인 야요이[弥生]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물이 바다를 건너 온 것이 분명하며, 그 대부분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조선왕조는 친밀한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이를 상징하는 것이 조선통신사입니다.

처음에 일본의 무로마치[室町]시대 쇼군[將軍]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당시 고려·조선왕조에 파견한 일본 국왕사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을 사자[使者]로 일본을 방문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주요 목적은 13세기부터 중국, 한반도 근해에서 약탈 행위를 반복하던 해적 집단인 왜구에 대한 금압 대책을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대한 국정시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된 시기도 있었으나 에도[江戸]시대 말기까지 이어졌으며 회화, 공예, 예능 분야에 뚜렷하게 그 흔적을 남긴 것은 한일 양국 문화에 대한 높은 공헌도를 의미하는 동시에 선린우호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악평이 자자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2번에 걸친 조선 침략, 즉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중단되었던 이 제도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부활시킨 것에 대해 '양국 화평의 사업, 자고

이래의 길, '통교는 상호 양국을 위한 것'이라는 언급이 남아 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통신사의 효시는 무로마치시대에 3회,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 2회, 에도시대 들어 이에야스가 생존해 있던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쇼군 때부터 11대 쇼군인 이에나리[家斉]에 이르기까지 12번이나 되는 일본 방문이었습니다.

회당 사절단 규모는 평균 약 45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실로 대규모 사절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민정(民情)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일본의 서민들도 수십 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이국 정서가 넘치는 사절단에 친밀감을 갖고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에는 의원이나 침구사도 수행했으므로 일본의 의사와 의학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문인들은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풍속화가[浮世絵, 우키요에]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는 통신사로 가장한 여성을 그렸고, 저명한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는 <부악백경(富嶽百景, 후지산 백경)안>에 통신사를 그려 넣는 등 일본과 조선 양국이 문화 교류를 거듭하며 후대의 문화 융성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런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6년 1월 말에 일본의 15개 관련 지자체가 구성한 NPO법인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와 한국의 부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신청서에 조인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인류의 평화 공존과 교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조선통신사 교류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시[下関市]에 있는 조선통신사 상륙지의 기념비는 한국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휘호를 쓴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강력한 연대를 통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민관 공조 체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일 미래를 위한 상호교류, 공생(共生)이 답이다

日韓の未来に向けた相互交流、
望ましくは共生

日韓における歴史問題の異なる対応方式のため両国の国民は相手国に反感を抱えている。両国の歴史知識と歴史から教訓を得ようとする努力を通じて共に生きる方法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両国が国境を越えた民間交流を活性化するとともに、各国の歴史を再探索することにより肯定的な事例を共有する必要がある。



로이 알록 쿠마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ロイ アルロク クマル + 釜山国際交流財団 事務総長

민간교류와는 달리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상이한 대응 방식 때문에 양국 국민들은 상대국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해방 이후 이런 감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역사의 진실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이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외교부는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 로고도 만들었다. 하지만 위안부, 독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여러 사안으로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었다. 언제까지 한쪽은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한쪽은 책임을 묻는 데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인가?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국경을 초월해 교류를 활발히 하면 언젠가는 기성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까?

불가에서 부모자식 간은 서로 알아야 할 인연이고, 형제 지간은 서로 양보해야 할 인연이라 했다. 한일 두 나라는 어떤 인연에 비유할 수 있을까? 승자와 패자?

이 세상엔 영원한 승자와 패자는 없다. 공생(共生)만 있을 따름이다. 단, 서로 도움이 되는 공생(co-existence)이나 그렇지 않은 공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기성세대의 두려움보다 무조건적 이해와 양보를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부산 국제교류재단은 민간차원에서 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다.



한일민간교류활성화를 위해 향후 쓰시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오사카 등 주요 도시를 잇는 문화교류 및 홍보단의 일본열도 장정행사를 통한 교류증진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각 도시에서 토론, 문화교류 등을 통해 청년들 간에 상호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힘쓰고자 한다. 특히, 양국 청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고 숨은 역사, 인물, 미담사레 등 서로 긍정적인 사례를 연구, 발표·공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 외 한일 선상 크루즈 행사 등을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행사 및 일본과의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와 연계하여 역사, 문화를 주제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류의 미래가 단순히 민족, 국가만으로 제한되기에는 부족하다.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이 없으면 실수가 되풀이 될 뿐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혁명은 네트워킹이다. 통신, IT, 에너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회공학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은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네트워킹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Robert Fulghum의 지혜를 엿보고 싶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다.
신화는 역사보다 효능이 있다.
꿈은 사실보다 강하다.
희망은 경험을 이겨낸다.
웃음이 슬픔을 치유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냉전시대의 유물이었던 철의 장막,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장면이 아직 우리 뇌리에 생생하다. 인류는 하나이다. 이런 역사가 최근에 다시 위협받고 감정의 담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것 같다.

답을 쌓으면 귀찮은 이웃이 사라질 수 있는가? 우정을 버리고 혼자서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날처럼 통신과 이동이 편리해진 21세기에서 이웃의 사정보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세계평화가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도시 외교와 민간 교류의 길은 더 넓혀져야 한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2006년 개소 이래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시의 민간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중심기관으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왔다.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는 오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모노세키와 자매도시 체결 40주년을 맞아 양 도시

시장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갖기도 했다.

올해 일본과의 주요 사업으로 부산과 시모노세키 양 도시 간 시민들을 파견·참가시키는 마라톤교류를 8회째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지방단체 중 유일하게 ‘부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모노세키 리틀부산페스타’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을 파견한 바 있다. 그리고 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마츠리, 기타큐슈 왓쇼이 축제에 문화공연단 파견, 부산-후쿠오카-상하이 3개 도시 아동들이 참가하는 한·중·일 아동그림전을 추진했다.

올해는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들을 후쿠오카로 처음 파견하여 현지 청소년들과 야구교류도 진행한 바 있다. 그 밖에 후쿠오카와 시모세키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대회의 1등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부산소재 대학에서 무료로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나가사키와는 ‘한일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양 도시의 한일 대학생들이 모여 국제적 이슈에 관하여 토론하고 양국의 상호 발전방향을 논하며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매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조선통신사, 등재의 열망을 안고 파리로 향하다

朝鮮通信使、
登録の夢を抱えてパリへ向かう



約400年前から両国を行き来しながら誠信交隣の精神を実践していた朝鮮通信使は、今は両国を超えて世界の平和と文化交流の模範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日が遠くない。最近、両国の2つの民間団体が共同で「朝鮮通信使関連記録」をユネスコ世界記録(記憶)遺産として登録を申込、その価値を高める広報事業をユネスコ本部があるフランスのパリで行ったためである。



한태문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韓泰文 + 釜山大 國語国文学科 教授



1.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향한 첫걸음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잘 뚫리는 도로 덕에 예상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김해 공항. 하지만 여유를 부릴 새도 없다. 먼저 오셔서 의자에 앉아 계신 강남주 학술위원장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수업에 늦은 학생마냥 민망한 마음에 재빨리 인사를 올린다. 오늘은 지난 3월 30일,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신청서'의 후속 사업으로 양국 대표단이 그 홍보를 위해 파리로 향하는 날이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한 지 약 12시간 만에 비행기는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 우리를 내려놓는다. 테러가 발생한 곳이라서 수속이 까다롭거나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공항직원의 한국어 환영인사까지 받으며 편안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공항을 나서니 이내 비가 흠뻑리기 시작한다. 말로만 듣던 파리 특유의 겨울 날씨를 체감한다. 철쭉 같은 시내를 지나 숙소에 도착하니 에펠탑이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다. 안개비로 탑의 상부는 보이지 않으나 파리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엔 충분하다.

2. 한지 인형으로 되살아난 조선통신사 행렬,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전시회

11월 14일 월요일. 시차 적응차 하루를 충분히 쉬 덕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이요궁 옆에 위치한 파리 한국문화원으로 향한다. 이날은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 전시회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파리 시민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호접란이 화사하게 만개하여 환영인사를 한다. 그 다음 조선통신사 홍보영상을 담은 대형 벽걸이 TV화면이 눈에 들어온다. 영상에 낯을 잃고 빨려들 듯이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 벽에 걸린 한일공동학술회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꼼꼼히 살피는 사람,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행사장 입구를 지나자 아내 넓은 공간의 두 벽을 무대로 한지 인형으로 만든 조선통신사 행렬이 위용을 드러낸다.

이 인형들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1711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를 바탕으로 한지공예 작가들의 모임인 '소향회가' 약 5년에 걸쳐 제작한 것이다. 그 중 사람 모습의 인형만 2,100여 점이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기념으로 올해 5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의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처음 인형 전체가 전시되어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오늘은 그 가운데 '국서가마'·'정사'·'약사' 등이 중심이 된 150여 점의 조선통신사 행사 사진 패넬과 함께 전시 중이다.

오프닝 행사 시작이 임박하니 전시장은 100여 명의 참석자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이윽고 박승환 국제협력팀장이 개회를 알림과 동시에 파리 한국문화원 박재범 원장의 개회인사가 뒤를 잇는다. 그는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회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도록 해준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한일 양국 공동으로 등재신청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꼭 등재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이어 양국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제국 한국추진위원장과 마쓰바라 카즈유키[松原一征] 일본추진위원장의 인사가, 그 뒤를 이은 강남주 한국학술위원장의 건배 제의가 끝나자 관람이 시작되었다.

관람객들은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쁘다. 그들은 인형의 표정이 제각각인 데다, 가까이서 한지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한 모양이다. 벽 한쪽에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소망트리' 판넬이 걸려 있다. 강남주 위원장이 높은 가지의 끝에 서명을 하자 다른 관람객도 가지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행사가 끝날 즈음 다과를 즐기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바쁜 걸음으로 작은 공간을 향한다. 따라가 안을 엿보니 수강생들이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 수업 준비로 분주하다. 맨 뒷줄에 앉아 있는 예쁜 아가씨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물으니 주저 없이 K-Pop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란다. 앞줄에 앉아 있던 청년도 고개를 돌려 자신도 그런 이유라고 한 마디를 보탠다. 말로만 듣던 한류를 직접 접하니 신기하다. 오래전 조선통신사를 접한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고, 같은 옷을 만들어 입고, 흥내 내어 춤을 추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 문화에 매료되어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3.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다, 조선통신사 세미나

11월 15일 화요일. 관람객의 일원으로 참석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세미나의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하는 날이다. 숙소에서 발표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둘러 파리 일본문화회관으로 향한다. 세느 강변에 위치한 일본문화회관은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 우리 문화원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세미나가 개최되는 강당 입구의 로비에는 일본 측이 준비한 '조선통신사행렬도'가 펼쳐져 있다. 모사본이긴 해도 색깔이 선명하고 행렬의 구성도 체계적인 데다 국서와 별폭(別幅)을 실은 가마를 각각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회의를 마치고 점심 도시락을 먹은 후 행사장으로 향한다. 영화상영관 같은 구조의 강당에 청중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윽고 양국 추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강연이 시작되었다.

첫 연사는 일본 학술위원 쿠라치 카즈나오[倉地克直]교수로 <조선통신사-17~19세기 조선과 일본의 평화 구축과 문화교류>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는 조선통신사의 왕래가 전쟁을 겪은 조선과 일본이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가 펼쳐졌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현재 어려운 양국 관계는 조선통신사가 가르치는 '정신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강남주 위원장은 <조선통신사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치른 전쟁의 역사를 살피기 전에 과거 프랑스가 겪었던 전쟁의 역사부터 살펴보겠다고 운을 뗐다. 영국과 116년간 지속된 왕위계승권 분쟁, 17세기 스페인과의 전쟁, 그리고 19세기의 프로이센 전쟁을 들며, 나라 사이의 전쟁은 승패와 관계없이 개인과 국가에게 큰 상처를 입히므로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쟁의 실상을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은 전쟁을 평화로 바꾼 교과서라 할 수 있기에 기록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선정과 내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먼저 12차례 한일공동학술회의를 통해 기록물을 외교 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나눈 결과 총 111건 333점을 등재 신청 대상목록에 올릴 수 있었던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크게 세 종류로 나눈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가운데 양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화면에 띄워 소개하였는데, 객석에서는 연신 감탄이 튀어나왔다. 나아가 등재될 경우 향후 관리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세미나는 끝이 났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선통신사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머나먼 이국땅에서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어디 나만 그랬을까? 리셉션장에서 만난 김현주 전 한인회장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내 귓가에 남아 있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이 파리에서 이처럼 사이좋게 공동으로 일을 추진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저는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미나 발표장 로비에 전시된 조선통신사 행렬도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방문



유네스코 본부 방문

4. 등재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전하다, 유네스코 관련 기관을 찾아서

11월 16일 수요일. 세미나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서인지 숙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오늘은 유네스코 본부와 양국 유네스코 대표부를 방문하여 등재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전하고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날이다. 양국 대표단이 함께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 곧 유네스코 본부이다.

가을이 짙게 내려앉은 나무들을 뒤로하고 입구 검색대를 통과하여 사무동에 이르자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곧이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방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사무국 관계자의 인사에 이어 양국 추진위원장들은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선정 과정과 선정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들은 내년 2월부터 논의(심사)에 들어가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 정도에 선정 결과가 나오며, 만약 이후에도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양국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전달한 뒤 그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본부를 나섰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방문했다.

김인점의 『일동장유가』를 읽었던 감회를 전하며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던 이병현 대사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관광을 못했을 테니 파리 시내에 한눈에 보이는 곳을

소개하겠다고 대사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서 순간 대표단은 하나같이 탄성을 질렀다. 그야말로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아름다운 방이었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 문화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던 일본문화회관의 위용에 주눅 든 마음이 통창하게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한국대표부를 나온 대표단은 다시 일본대표부를 찾았다. 한지 인형 전시회에서 처음 뵈었을 때도 느꼈지만 여전히 옆집 아줌마 같은 수수한 차림의 사토우 쿠니[佐藤 地] 대사는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일본 대사로서 협조를 약속했다.

5. 귀로에 오르며

11월 17일 목요일. 파리의 모든 일정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아침. 그동안 내내 흐리고 비가 내려 우울한 기분마저 들게 했던 하늘이 처음으로 맑게 개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가에 착 달라붙어 있던 낙엽들이 마치 날개를 단 모양 제법 바람에 퍼덕인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는다.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문득 지난 3월, 신청서 제출을 위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지막 교정을 보느라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켰던 날들이 떠오른다. 어쩌면 오늘 저 맑은 날씨가 등재의 서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세토우치 우시마도와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瀬戸内牛窓と朝鮮通信使について



쿠라치 카쓰나오 + 오카야마대 명예교수
倉地 克直 + 岡山大 名誉教授

瀬戸内牛窓は、瀬戸内海のほぼ中央にある湊町である。古くから朝鮮とのつながりも深く、通信使が派遣されるようになると接待場所となった。現在も三使らの接待場となった本蓮寺や御茶屋の遺構が残っている。文化交流を示す使節の書軸も本蓮寺に残されており、岡山藩の接待に関する資料は『他田家文庫資料叢書・朝鮮通信使響応関係資料』として刊行されている。通信使と関連の深い「唐子踊り」も、江戸時代末期から続けられている。

❁ 세토우치의 우시마도

쓰시마[対馬]를 떠난 통신사 일행은 현해탄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시모노세키[下関]에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로 들어선다. 파도도 잔잔해지면서 한숨 돌렸을 것이다. 우시마도[牛窓]는 세토나이카이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사절단 일행도 수많은 섬들이 떠있는 아름다운 나이카이[内海]의 풍경과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의 모습에 안심했을 것이다.

우시마도는 현재 오카야마현[岡山県] 세토우치시에 속하며, 예로부터 세토나이카이에서 배가 드나들거나 머물기 좋은 항구로 알려져 있다. 우시마도항이 바라보이는 고지대에는 5세기부터 6세기에 지역을 다스린 호족의 분묘가 점재되어 있으며, 그중 몇몇에서 조선의 기법으로 만든 스에키[須恵器] 토기가 발견되었다.



우시마도 전경



우시마도 혼렌지



우시마도 혼렌지

우시마도 가야유문화관



그중 하나가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장식 스에키로, 씨름을 하는 인물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지역과 조선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우시마도는 그 후에도 세토 나이카이 교통의 거점으로 번성했다. 1420년에 일본을 찾은 조선 사절단의 기록인 <노송당 일본기행(老松堂日本行録)>에도 우시마도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한 <해동제국기(海東諸国記)>에는 1467년 우시마도의 대관(代官)이 조선에 사신을 보냈다고 적혀있다. 이 시기에 우시마도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시하라[石原] 가문은 일본 국내는 물론 조선, 중국과도 교역을 하는 해상 무역 상인이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조선에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이 이시하라 가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보아 우시마도라는 이름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에도 알려져 있었으리라고 사료된다.

❁ 혼렌지[本蓮寺]

‘임진왜란’ 이후 재개된 조선의 사절단은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 불렸다. 첫 번째로는 1607년에 일본을 방문했으며 우시마도에도 기항했다. 그러나 부사(副使)였던 경심(慶暉)의 ‘해사록(海槎録)’에 따르면 ‘마을은 바다에 인접해 있고 불과 삼백여 호’라고 적혀 있어 결코 번성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16세기에 이어진 전란으로 인해 이시하라 가문이 몰락하고 마을도 전화(戰火)를 입어, 이전의 활기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일행은 그곳의 영주로부터 식량을 제공 받았지만 상록은 하지 않았다.

1617년에 파견된 사절단도 우시마도를 지나갔지만 역시 상록은 하지 않았다. 종사관인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扶桑録)’에 따르면 ‘우시마도 또한 식량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잠시 정박하여 물을 보충한 후 출항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에서 우시마도에 속한 비젠 노쿠니[備前国]는 하리마노쿠니[播磨国] 히메지[姫路]의 영주 이케다[池田] 가문 영지의 일부로 여겨지며, 접대는 본국인 하리마노쿠니의 무로쓰[室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1624년 세 번째 방문부터 크게 바뀐다. 하리마노쿠니의 이케다 가문의 영지가 이나바노쿠니[因幡国]의 돗토리[鳥取]로 옮겨가고 비젠노쿠니의 이케다 가문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사절단 일행은 상륙하여 혼렌지에 묵었다.

부사인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에 따르면 '배에서 뚝으로 올라가면 절 앞까지 좌우로 민가 수백 채가 줄지어 있다. 남녀가 길 양쪽에서 구경하는 모습은 마치 가옥의 울타리 같았다고 한다. 우시마도의 마을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또한 강홍중은 '심부름을 하는 이는 모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다. 그들은 모두에게 예의가 발랐다고도 기록하고 있다. 그해부터 우시마도에서 본격적으로 접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렌지는 14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처음부터 이시하라 가문의 비호(庇護)를 받아 발전했다. 15세기 후반에 건설된 본당(本堂), 번신당(番神堂), 중문(中門)이 남아 있으며 모두 국가 지정중요문화재이다. 현존하는 전각에는 '알현의 장(謁見の間)'이라 전하는 사랑방이 있다. 다만 이 건물은 18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실제로 여기에 사절이 묵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 비슷한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절단의 접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혼렌지 경내는 '조선통신사 유적'으로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도 깨끗하고 조용한 경내를 거닐다 보면 사절단이

여독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켰던 당시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혼렌지에는 1643년부터 1711년까지 조선 사절단이 쓴 한시 서축 9점이 남아 있다. 모두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신청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다.

❁ 최초의 '통신사'

1636년 사절단은 국서의 형식이 개정된 최초의 사절단으로, 명칭도 '통신사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 접대 체제도 이때부터 정비가 이루어졌다. 우시마도에서는 지난 번에 이어 오카야마번[岡山藩] 이케다 가문이 혼렌지에서 접대를 담당했다. 사절단 일행이 우시마도에 상륙한 때는 밤이었다. 때문에 '항구에서 절에 이르는 도로의 양측에는 한 발짝마다 등불을 세워 맑은 대낮처럼 밝았다고 종사관 황호(黃床)의 '동사록(東槎錄)'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접대 장소는 '주위에 금병풍이 놓이고 식기에도 금박을 들렀으며 등불에 비춰져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번주인 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가 직접 접대에 임했다. 오카야마번이 첫 통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접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뒤이어 1643년과 1655년에 방문한 사절단의 경우, 우시마도 접대는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다만 1655년 종사관이던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扶桑錄)'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 혼렌지가 '매우 답답했다는 것이다.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탓인지 남용익은 우울하게 느꼈다. 건물도 성대한 접대를 하기에는 조금 협소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었던지 다음번부터 삼사(三使) 등의 접대 장소가 오차야[御茶屋]로 옮겨지게 된다.

❁ 문화교류가 시작되다

오차야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나 다른 번의 번주 등을 접대하는 장소로 17세기 전반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다 1669년에 개축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다음 통신사 접대를 대비하여 혼렌지를 대신할 시설로 준비된 것으로 사료된다. 1682년 사절단의 역관이었던 홍우재(洪禹載)는 이 오차야를 '새로 지었다고 보았으며 '넓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우시마도에서의 문화교류도 168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카야마번에서 참가한 이는 모두 번 내 학교의 교수였으며 한시의 창수와 필담이 이루어졌다. 필담에서는 이퇴계(李退溪)의 <자성록(自省錄)>이 화제에 올랐다. 오카야마번 학교는 1666년에 창설되었으며 1682년에는 번의 향학(鄕學)인 시즈타니 학교[関谷学校]도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시즈타니 학교의 자취는 현재도 거의 당시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강당은 교육 시설로는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접대에는 번주의 남동생으로 분가의 당주인 이케다데루토시[池田輝録]가 합류했다.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東槎日錄)'에는 그와의 대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대화는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동갑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친근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데루토시는 김지남에게 차를 권하고 글을 청했다. 김지남은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데루토시가 정중히 간청했기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주었다. 데루토시는 크게 기뻐했다. 이 또한 1682년 우시마도에서 있었던 교류의 흐뭇한 한 장면이다.

❁ 교류의 심화

1682년에 필담 창수(唱酬)를 했었던 오바라다이조켄[小原大丈軒]은 1711년의 접대 자리에도 참석했다.

더불어 1711년에 참석한 번의 유학자 야마다 고사이[山田剛]와 와다 가라쿠[和田可楽]는 1719년 방문에도 사절단 일행과 필담 창수를 했다. 그들은 통신사의 다음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문인과 교류한 것에 감격했을 것이다.

1719년 그들 두 사람을 응대한 것은 '해유록(海游錄)'을 쓴 신유한(申維翰)이었다. 신유한은 두 사람이 한 시로 소통하는 것에 감탄했다. 와다 가라쿠의 요청으로 그의 시집 서문을 써주었다. 사절단 일행은 귀국할 때도 우시마도에 정박했으나 신유한은 내리지 않았다.

바닷가를 바라보니 와다 가라쿠가 돌담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다. 신유한은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가서 잠시 필담을 하고 헤어졌다. 아쉬워하는 와다 가라쿠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신유한의 태도도 실로 보기 좋다.

혼렌지에는 1711년 서기였던 남성중(南聖重)의 서축이 남아 있다. 그 시는 '혼렌지에서 울며 죽은 아버지의 유작시에 답가를 하다' 라고 제목이 붙었다. 그의 아버지는 앞서 소개한 남용익이다. 남용익은 통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정쟁(政爭)에 휘말려 불행하게 죽었다. 이번 통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아들 남성중은 오키쓰[興津]의 세이켄지[清見寺]에서도 아버지의 유묵을 보았으나 우시마도에서도 아버지의 유묵을 접하고 몹시 감동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용익의 서축은 현재 혼렌지에 남아 있지 않으나 그의 '부상록'에는 우시마도에서 쓴 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본 남성중의 절절한 심정이 그의 시에서 전해져 온다. 이렇게 부자를 연결하는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통신사 파견이 계속되어 교류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오카야마번[岡山藩]의 접대기록

우시마도에서 접대를 담당한 오카야마번은 비젠 노쿠니와 빗츄노쿠니[備中国] 일부에 영지를 가진 큰 다이묘[大名]였다. 그 번정 기록은 현재 '이케다 가문의 문고로서 오카야마대학교[岡山大学]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중에는 75점의 통신사 접대에 관한 자료가 있고, 이것이 현재 <이케다가 문고자료 총서2 조선통신사 항목 관련 자료> 상·하로 번각, 발행되었다(오카야마대학교출판회관 발간). 이 자료 중 1719년을 중심으로 접대에 동원되는 민중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삼사(三使)가 향응을 받은 곳은 번의 오차야였는데 그 외 사절단 일행의 휴식과 향응을 위해 일반 민가 19채가 동원되었다. 이 민가에서는 사절단이 방문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귀향 시 접대가 끝날 때까지 집 주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 기간은 거의 반 년에 달했다. 그 외에 사절단을 수행하는 쓰시마번 일행을 위해서도 마을 내 25채의 집을 내주었으며 접대를 담당하는 오카야마 번사(藩士) 등의 숙사로도 민가 146채가 징발되었다. 당시 우시마도 마을 내 가옥은 800채가 되지 않았으므로 4채 중 1채 꼴로 징발이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접대와 관련된 민간인으로는 요리사, 미용사, 작가, 목수, 심부름꾼 등 250여 명이 동원되었다. 그 외에도 준비 단계부터 청소나 힘쓰는 일 등, 잡다한 일에 종사하는 인부 다수가 민간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가장 많이 동원된 것은 민간의 배와 사공이었다. 1711년에는 내항 시 838척·3,057명, 귀항 시 943척·3,747명이 동원되었다. 민간 포선의 임무는 해상의 항로 안내, 사절단의 배 예항, 물이나 식량 등의 제공이다. 포선에는 담당하는 사절의 배마다 다른 색깔의 깃발이 걸려 있었고 1000척 가까운 포선이 항행하는 풍경은 장관을 이루었다. 그 모습은 현재 쿠레시

[呉市] 시모카와카리초[下蒲刈町]의 고치소이치반칸[御馳走一番館]에 소장된 '조선인 내조각(朝鮮人來朝覺)'이라는 그림을 그린 두루마리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포선을 타는 사공들도 조선의 배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마음이 들떴을 것이다.

❁ 구경하는 민중들

통신사가 상륙하는 항구에는 조선인을 한 번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1748년의 종사관이었던 조명채(曹命采)는 우시마도 모습에 대해 '구경하는 남녀가 산에 가득하고 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모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절단 일행을 따라다닌다고 적고 있다. 경비를 하는 번에서도 '행렬을 구경하는 자는 길 끝에서 남녀가 섞이지 않도록 구경할 것. 산 위에서 보는 자도 행동거지에 유의하여 구경할 것'이라는 법령을 공표했다. 항구와 산에도 구경하는 민중들로 가득했다.

앞서 언급한 '조선인 내조각'은 코지마군[児島郡] 히비촌[日比村]에서 그려진 것인데 작은 배를 타고 사절선 가까이로 다가가 구경하는 민중의 모습과 '다이히루산[大比呂山]'이라는 작은 섬으로 건너가 구경하는 남녀의 모습을 재치 있게 묘사했다.

구경을 위해 모인 이는 가까이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미마사카노쿠니[美作国]의 쇼난군[勝南郡] 유키노부촌[行信村]은 우시마도에서 60km나 내륙으로 들어간 산간마을이다. 이마을주민인 아부키 마사노리[矢吹正経]는 1764년 통신사가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고지마군 반다촌[番田村]까지 나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종사선에 다가가 그대로 우시마도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구경했다. 우시마도의 바다는 사절단 일행이나 구경하는 배로 넘쳐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돌아갈 때는 가나오케[金岡]라는 항구에서 망원경으로 사절의 선단이 지나가는 것을 2시간 정도나 바라

보고 있었다. 해변에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멀리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는 화려한 모습이 전해졌다.

❁ 가라코 오도리[唐子踊り]

세토우치시 우시마도초 곤노우라[紺浦]의 야쿠신사[疫神社] 가을 축제에서는 가라코 오도리라는 신기한 춤을 춘다. 10세 전후의 남자 아이 두 명이 마주서서 추는 춤으로 아이들은 조선풍의 산뜻한 색깔의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당나라 갓을 썼다. 이 춤은 조선통신사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확실히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쓰시마나 효고 등에서 수행하던 동자가 마주서서 춤을 추고 그것을 많은 일본인이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시마도 사람들이 통신사가 지나갔을 때 동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시마도에서는 하루만 머물렀으며 일반인과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므로 직접 가르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 에도[江戸]시대에는 현재 상상하는 이상으로 일본 각지에서 '도진 오도리[唐人踊り]'나 '가라코 오도리'를 추었다. 가까운 오카야마 성 아래 마을의 도쇼구[東照宮] 제례에서도 1646년부터 '도진 오도리', 1711년부터는 '가라코 사자타기'와 '가라코' 행렬이 등장했다. 이는 1721년부터 '조선 오도리'로 바뀌었다. 우시마도에서 '가라코 오도리'를 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에도시대 후기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우시마도를 지나지 않게 된 지 50년이 지난 시기였다. 오카야마 등에 전해진 조선풍 춤을 배워 과거 통신사의 기억도 떠올리면서 '가라코 오도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거나 조선 통신사를 접대했던 우시마도 사람들의 기억이 이 춤을 지탱해온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 현재의 세토우치 우시마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현재의 우시마도 가이유 분카칸[海遊文化館]의 전신인 조선통신사 자료관이 개관되고 1991년에 처음으로 우시마도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었다. 통신사행렬은 그이후도 거의 매년 이루어졌으며 항구도시의 구경거리로 정착되었다. 우시마도를 찾은 사람들은 계절마다 세토 나이카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에도 시대의 조선통신사 역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 세토우치 시청

가깝고도 먼 나라, 그 오래된 미래

조선통신사의 아름다운 의미를 생각하며

近くても遠い国、その古い未来
—朝鮮通信使の美しい意味を考える



정신혜 + 신라대 무용학과 교수, 정신혜무용단 예술감독
鄭信惠 + 新羅大 舞蹈学科 教授, 鄭信惠舞踊團 芸術監督



1997年に創設して来年に20周年を迎える鄭信惠舞踊團は歴史の半分に当たる10年を21世紀の新朝鮮通信使の一員として活動してきた。これまで多彩な創作活動とともに「世界の人人に韓国の踊りを伝える」ために多くの海外公演を行ってきたが、なかでも朝鮮通信使イベントの参加は一味違う意味があった。こうした活動の根底には朝鮮通信使、その古い未来が盛り込んでいる平和と和解の象徴である踊りの文化イベントにより日韓両国の平和と相互共存に向けた共感の形成という交感を超え、世界に韓国の踊りを広く発信したいという鄭信惠舞踊團の素朴でありながらも意義深い目標を持っている。

‘조선통신사’ 그 오래된 미래의 기록들이 지금 여기, 새삼 다시 조망을 받고 있다. 4백여 년 전부터 2백여 년 간 이어졌던 조선과 일본의 성신교린의 역사가 오늘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002년부터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을 시작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해 온 부산문화재단이 일본 NPO법인 조선통신사 연지 연합회와 공동으로 2016년 11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찾아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333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

다는 소식은 21세기 신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필자에게는 그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잘 알다시피 조선통신사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등 일본의 침탈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던 양국이 국교를 회복하면서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조선의 문물을 전한 문화 사절이자 양국 간 평화의 토대를 쌓은 상징이다. 통신이란 ‘신익’을 나눈다는 의미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선린적 우호를 담고 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거의 매년 4백~5백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부산에서 바다를 건너 왜의 수도였던 에도까지 반년이 넘는 긴 여정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대장정의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절단의 선단과 행렬은 왜의 민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각계각층에 크나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향해 바다를 건너는 출발지였던 부산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개최 기념행사로 옛 행렬을 재현하게 되며 되살아 난 것은 긴 역사의 저편에 묻혀있던 문화적 유산이 새로운 차원으로 현재화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거쳐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를 만들고 옛 행렬을 복원해 해마다 대규모 재현 행사를 발전시켜 온 것은 물론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눈앞에 두기에 이르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의 해안과 노고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정신혜무용단이 21세기 신 조선통신사의 일원이 된 것은 2007년 9월 일본 도쿄의 히비야대극장에서 열렸던 조선통신사 4백 주년 기념 공연 ‘에도입성 성신교린의 축제’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우리 춤의 멋과 흥을

한껏 선사한 그 때 대극장을 가득 메운 일본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열렬한 박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마 옛 조선통신사 사절단 행렬이 일본의 곳곳을 지나며 받았던 열광적 환영이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의 정신혜무용단은 이후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에 함께 해 왔다.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시작하는 조선통신사 개막 공연에서부터 쓰시마 이즈하라, 시모노세키, 기타큐슈, 카와고에, 후쿠오카, 도쿄 등지의 거리 혹은 극장 등에서 열린 행렬과 공연에 참가하여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마음껏 뽐내며 전했다. 옛 조선통신사가 우리의 앞선 문화를 자랑하며 전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때론 고생도 없지 않았다. 폭염이 쏟아진 한여름에 옛 조선통신사가 걸어갔을 일본의 거리를 춤추며 행진하느라 동여맨 한복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했다. 또 변변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야외 임시 가설 무대에서 공연을 하느라 욕심껏 작품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클 때도 많았다. 그래도 길 양쪽을 가득 메우고 객석을 가득 채우며 폭염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준 일본인들의 반응을 대하며 우리의 보람은 컸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일은 2010년 미국 뉴욕 맨하탄의 한가운데서 펼쳐진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와 특설무대 공연이다. 격렬한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선린과 우호의 교류 행사를 2백여 년이나 지속한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역사를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 되살린 것이었다. 한일 간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세계 각국의 우호와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특별한 행사였다. 필자의 정신혜무용단도 함께 하여 뉴욕을 찾은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다. 옛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재현한 화려한 행렬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카메라에 담으며 윈터풀을 연발하던 그들의 모습은 벽찬 감동으로 지금도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물론 실제 등재가 확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일 간의 관계가 정치적 관계가 편치 못한 것도 한가닥 마음이 걸린다. 그러나 전쟁을 겪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던 양국이 신뢰를 복원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일방의 앞선 문물을 상대에게 전한 아름다운 역사는 존중받고 계승되어야 한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를 만들고 집행위원장을 맡아 조선통신사 역사를 오늘에 되살린 주역인 강남주 전 부산 문화재단 대표는 “우리에게 영원불변의 가치는 사랑이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툼이다. 그것이 전쟁으로 변하면 인간이 야수로 변한다. 그런 야수의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선통신사는 일본을 왕래하며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했다. 비록 빛과 그림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가 문화 우위 국가임을 내보였다. 역사는 새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되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역사의 이름으로 비극을 기록해서는 안된다. 그 교훈을 입진왜란에서 찾을 수 있고 조선통신사의 만리고행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일 간의 현재와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하더라도 과거 조선통신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더욱 크고 명료할 것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조선통신사가 입진왜란 이후 두 나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문화교류의 소중한 싹을 틔웠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이른바 ‘가깝고도 먼’ 한일 두 나라 사람의 마음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어쩌면 조금은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정치적 문제와는 달리 두 나라 국민들의 진정성 확보는 물론, 담백한 호응을 얻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는 사례지만 지난 1980년 발표된 가왕 조용필이 열창한 불후의 명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한국을 넘어 일본 국민들에게 공전의 히트를 하며 그들의 마음에 소중한 서정과 부산이라는 지명의

인지와 직접 방문하고 싶어하는 동경심까지 자극했다. 아울러 TV 드라마 <겨울 연가> 역시 한류 문화를 선도하며 본 대중문화에 미친 한국 문화 위력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기 이르렀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기억해 보더라도 선린우호와 문물전파의 아이콘인 옛 조선통신사 역사의 재현이 오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997년 창단하여 내년이면 창단 20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정신혜무용단은 절반인 10년의 역사를 21세기 신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함께 해 왔다. 그동안 다채로운 창작 활동과 함께 세계인의 가슴에 한국의 춤을 선사하려는 마음으로 많은 해외공연도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통신사 행사 참가의 의미는 남달랐다.

이러한 행보의 근간에는 조선통신사, 그 오래된 미래가 담고 있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춤 문화행사를 통한 한일 두 나라의 평화와 상호 공존을 향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교감을 넘어 세계무대에 한국의 춤을 널리 소개하려는

정신혜무용단의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실천을 하게 된 배경이 작용했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우리 정신혜무용단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결정될 경우 그야말로 기쁨의 춤을 누구보다 신나게 출 것이다.

그리고 훗날, 필자는 조선통신사 본연의 그 아름다운 동행의 행보를 추적하는 역대급 창작 무용작품을 안무하고 연출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 하여 앞으로 더 세심한 마음으로 눈과 귀를 열어 이모저모 진행되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련 뉴스와 정보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자료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 볼 요량이다. 부디 이미례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소통을 위한 역사적 과업과 세계적 의미를 가진 글로벌 브랜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노력과 땀의 정성이 쉼 없이 쌓여 어느 날, 스스로 감동의 무대로 그 결실이 선뜻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으로 희망하면서...

‘헤이트 스피치’와 ‘프리 허그’

「ヘイトスピーチ」と「フリーハグ」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團 副理事長

韓国と日本は一衣帯水の隣国である。だが、日本で行われているヘイトスピーチ、つまり反韓デモは両国の友好関係に水を注している。そんな中、両国の青年たちが手をつないでフリー・ハグキャンペーンを繰り広げるのは、対立や憎みの代わりに和解や平和を求める行動としてその意味が大きいといえる。本日のフリー・ハグの精神、温もりが日韓両国の多くの市民に広く拡散することを期待する。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을 하는 증오언설(憎惡言說)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 한다. 차별선동을 일컫는 이 말은 극우 일본인들의 ‘혐한(嫌韓) 시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21일 헤이트 스피치로 요란한 일본 오사카 거리에서 한국 여성이 한복을 입고 ‘프리 허그(free hug)’ 캠페인을 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올라 한·일 두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겼다.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든 반한(反韓)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는 거리에 한복을 입고 눈을 가린 한국인 여성이 팻말을 들고 등장, 프리 허그를 시작한다. 팻말에는 일본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반한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함께

안아보실래요?”라는 글이 씌어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려 포옹하자 이내 소녀부터 중년 남성에게 이르기까지 줄지어 프리 허그에 동참한다.

이 캠페인은 일본 여행작가 쿠와바라 코이치(桑原 功一)가 기획하고 두 나라 청년들이 참여했다. 2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증오로부터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쿠와바라는 2011년 서울과 부산에서 직접 프리 허그에 참여해 한국 시민들과 정을 나눴는데, 이번이 9번째 이벤트였다. 한복을 입고 출연한 재일 한국인 유학생 윤수연은 지난해 교토에서도 프리 허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프리 허그는 길거리에서 스스로 ‘free hug’라는 피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을 안아주는 행위이다. 이 캠페인은 포옹을 통해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프리 허그 닷컴 설립자 제이슨 헌터에 의해 2001년 최초로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2006년 호주인 후안 만의 동영상으로 확산이 됐다.

쿠와바라 코이치가 만든 프리 허그 동영상은 모두 18개로 유튜브에서만 500만 명 이상 지켜봤다. “이런 이벤트를 하나까 혐한이 된다”고 이죽거린 반응도 있지만, 절대다수는 “감동했다” “지켜보며 울었다”는 등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쿠와바라는 지난 2011년 처음 피켓을 들고 서울 거리에 섰을 때 ‘O바리’ 등의 욕지거리를 듣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 남학생이 다가와 포옹하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풀렸고 “사람을 믿자고 마음을 다져먹었다고 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신문의 이시바시가쿠(石橋学) 편집위원 등이 펴낸 책 『혐한시위를 멈춘 거리』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지난해 11월 혐한 시위대가 가와사키(川崎)시 코리아타운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를 저지하고자 재일동포들이 들고 일어나 8개월가량 투쟁을 이어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길고도 외로운 투쟁은 국회 중언, 서명운동 등을 통해 혐한 시위규제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쿄의 위성도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인구 140만 명의 제법 큰 도시로 일본 최초로 혐한 시위대 발길을 돌려세운 곳이다.

2015년 11월 재일코리언의 집단거주지역에서 헤이트 스피치 집단데모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 등을 중심으로 반(反)헤이트 스피치 운동이 벌어졌다. ‘헤이트 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가와사키시민 네트워크에 찬성하는 단체는 162개로 반헤이트 스피치 집회 때는 1,000명 이상 참가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가와사키시는 인종차별금지 법률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나라이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곧 혐한시위는 양국의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 청년들이 손을 잡고 프리 허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갈등과 증오 대신 화해와 평화를 희구하는 몸짓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프리 허그의 참다운 정신, 따뜻한 마음이 한·일 두 나라의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로 진출하다!!

「朝鮮通信使」がユネスコ本部のあるパリへ進出する!!

●● 2016년 3월 30일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라는 대장정의 1차 목표인 한일 공동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우편 접수하였다. 2014년 6월 16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을 오가며 12차례에 걸친 학술회의와 3차례의 추진위원 회의, 공동 신청서 최종 점검 회의 등을 거친 결과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5월 부산에서 개최한 '2016 조선통신사 축제'에는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국내 관계 내빈과 일본 외무성 정무관, 나가사키현지사, 쓰시마시장 등 일본 측 내빈이 참석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이후 가진 관계자 교류 만찬회에서 "다음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 가서 한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합시다."

는 일본 측 추진부회 마츠바라 카즈유키 연지연 이사장의 제안에 한국 측에서도 호응하며 파리에서의 '조선통신사 홍보사업'을 본격 준비하게 되었다.

사실, 일본 측에서는 이미 작년(2015년) 하반기에 파리에서의 홍보사업 추진을 염두해 두고 '파리일본문화회관'을 행사장으로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실무진을 통해서 파리에서의 한일 공동 홍보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왔었던 상황이라 한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 구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5월 말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진 회의에서 한일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파리일본문화회관' 뿐 아니라 '파리한국문화원'에서도 관련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한일 공동 추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일본 측에서도 수용하여, 조선통신사 관련 홍보 전시는 '파리한국문화원'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세미나는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 리셉션(파리한국문화원)



조선통신사 세미나 및 리셉션(파리일본문화회관)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 방문

'파리일본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 틀을 확정하고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파리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단은 한국 측에서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학술위원회 강남주 위원장, 한태문 학술위원과 부산광역시 주무부서 주무관, 재단 관계자 포함 6명, 일본 측에서는 쓰시마시장, 세토우치시장, 시즈오카 부시장, 시모노세키 부시장을 비롯한 일본 내 조선통신사 연구도시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출발하여 파리 현지에서 합류하였다.

●● 2016년 11월 14일

먼저 파리한국문화원에서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및 사진 패널 홍보전시' 오픈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한지 인형 150여 점과 조선통신사 행사 및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기록물 관련 사진 등을 전시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날 오픈 리셉션은 평일, 그것도 월요일 저녁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이병현 대사, 유네스코 일본 대표부 사토 쿠니 대사 등 한일 양국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파리한국문화원장, 파리일본문화회관장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파리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KBS 특파원의 취재로 익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어 조선통신사의 파리행사를 국내에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2016년 11월 15일

파리일본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세미나'에서는 일본 측 쿠리치 카츠나오 학술위원이 '조선통신사 - 17~19세기 조선과 일본의 평화구축과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한국 측 학술위원회 강남주 학술위원장이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이유', 한태문 학술위원이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선정과 내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날의 세미나에도 주프랑스 일본국대사관 기테라 마사토 대사, 유네스코 일본 대표부 사토 쿠니 대사를 비롯한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2016년 11월 16일

이틀에 걸친 현지행사를 잘 마무리한 한일 양국 방문단은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여 CI국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조선통신사에 대한 소개와 한일 공동 등재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방문단의 문의 사항에 대해 유네스코 사무국 담당자는 기록유산 신청건수가 예년보다 월등히 많아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르면 내년 9월, 늦어도 11월경에는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유네스코 일본대표부를 방문하여 조선통신사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현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의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추진단체 간 팀워크가 좋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그동안 한일 양국의 추진단체가 함께한 노력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소망트리



조선통신사 평화의 의미를 담아 프랑스 평화의 벽 앞에서

조선통신사 뉴스

❁ 2016 조선통신사 한일네트워크사업

시즈오카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축제



일시 : 2016. 10. 22. (토) ~ 23. (일)

장소 : 시즈오카시

내용 : 스푸성 천수대 발굴 조사 공개
이벤트, 한일 문화교류 공연,
세이켄지 라이트업 및 축하공연,
오키츠 페어 무대공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친서교환식 등

세토우치 우시마도
국제교류축제 2016



일시 : 2016. 11. 5. (토) ~ 6. (일)

장소 : 세토우치시

내용 :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국서교환식, 한일교류 공연 등

조선통신사 유관기관 교류
네트워크 세미나



일시 : 2016. 12. 8. (목)

장소 : 코모도 호텔

내용 : 조선통신사 관련 국내 연고지역 및
유물 소장 기관 등 관련 기관, 한일
문화교류 관련 단체 대상 세미나



※ 시즈오카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축제 사진입니다.

❁ 조선통신사 학회 -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조선통신사학회(회장 강대민)가 9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한문화교류
기금이 수여하는 제17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단체)을 수상하였다. 조선통신사
학회는 2006년 5월 조선통신사 관련 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근 조선통신사 관련 양국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 신청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은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
친선에 기여한 한국인(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1999년 창설되었다.

통신사의 숙소 이야기

- 에도 숙소 히가시혼간지를 중심으로

通信使の宿物語

— 江戸の客館の東本願寺を中心に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朴花珍 + 釜慶大 史学科 教授



<그림 1> 조선통신사 에도
시가지 행로(江戸切絵図,
人文社, 1999 참조)
※ 청색○: 에도성
적색○: 히가시 혼간지

<그림 2> 히가시 혼간지 일대
※ 왼쪽○: 히가시 혼간지
중간네모점선: 센소지
오른쪽○: 요시와라

정식 의장을 갖추어 아침 일찍 시나가와 도카이지품[東海寺]에서 에도(현 도쿄)를 향해 출발한 통신사 행렬은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에도 숙소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까지 35리에 달하는 거리를 진행했는데(그림 1)참조, 이 통신사 행렬의 웅장한 모습과 연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을 이루며,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구름 같은 행렬과 가마 등의 모습에 구경꾼들도 엄청났다(제8차 통신사행-1711년)' 운운이라 전하고 있다.

통신사의 에도 숙소는 처음에 바쿠로쵸[馬喰町] 혼세이지[本誓寺]였으나 화재로 소실되어, 제8차 통신사행 1711년(숙종 정德)부터 아사쿠사[淺草] 히가시 혼간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아사쿠사[淺草]가 에도 시가지 중에서 가장 북적이고 변화한 거리이자 수많은 사찰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센소지[淺草寺]는 나라시대(710~784년) 이래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사찰로서 스미다가와[隅田川] 연변의 조용한 농어촌 지역에 지나지 않았으나, 159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도막부 제1대 쇼군) 관동 입국과 더불어 서민들의 신앙을 모으게 되고, 1630년 에도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땅에 문젠마치[門前町]: 절 앞의 변화가의 발달, 1657년 이후 유곽 신 요시와라[吉原] 이전으로 인해 에도 시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변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센소지의 산자마쓰리[三社祭]를 비롯하여 다양한 축제 및 연말 행사 등에는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그 화려함과 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도 시대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는 총면적 5,773평, 탑두 16개 규모의 당시 새로 창건한 사원으로서 모두 수천 칸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약 340~370여 명에 가까운 통신사 일행이 머물렀다. 또한 이를 호송하는 쓰시마 번 및 에도막부의 조선 어용을 맡은 다수의 고위 관리들 숙소로서 센소지[淺草寺]를 비롯한 인근 사찰 37여 개 곳(滿照寺·善照寺 등등)에 모두 분산·수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2)참조.

1711년(제8차)부터 1764년(제11차)까지 4차례, 400명에 가까운 통신사들이 보름에서부터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물렀지만 에도 시대 통신사 숙박 관련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오늘날 비록 소멸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부근에 <조선 장옥(朝鮮長屋)>이라 불리는 건물이 메이지 시가지까지 존재하였다고 하는데, 통신사 사절 일행 중 하관(下官)들의 숙소로서 임시로 센소지 경내에 만들었던 작은 목조 가옥을 가리킨다고 한다. 에도 시가지 속에 잔존하는 통신사 문화 교류를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다.